

것을 생각할 때 더구나 每日치는 鐘을 이런 弱點을 가진 二次 注入이 있을 수 없으며 鑄造에 使用되던 鎔範의 接續이 이 缺을 만들었다고 보는 바이다. 이 線을 中心해서 鐘은 上下로 區分되는데 缺線下는 鐘口의 八菱尖點을 中心해서 各部 彫刻이 되었다. 即 前後撞座, 四面飛天, 左右銘文等이 等分해서 配置되었는데 그 彫刻된 手法과 配定이 가장 自然스러워 보인다. 彫刻의 手法은

A、淳朴性이 濃厚하고

B、線條가 늘씬하면서도 두껍고

C、雄麗한 曲線은 安全感和 包容性이 있고

D、口帶八菱上의 蓮花文이 花瓣에 대해서 子房이 크다.

缺線의 上部를 보면 四面에 等間隔의 乳廓이 肩帶直下에 配置되었으며 (乳廓 上幅三·四尺 下幅三·六四尺 長二·三八五尺) 乳廓內縱橫三列의 乳座中 中央縱線이 飛天을 通해서 垂直으로 口帶 八葉 蓮花文 中心點과 一直線을 이루는데 各乳廓들이 모두 같다. 그리고 다른 鐘에서는 볼 수 없는 乳頭없는 乳座만 陽刻하였는데 乳座는 直徑四·三寸의 十八瓣 蓮花로 만들어서 美麗感을 한층 더하고 있다. 彫刻手法은

A、強勇性이 높고

B、線條가 緊張

感이 있고 纖細

하며

C、小局에 置重

하여 緻密感이

있고

D、乳座 蓮花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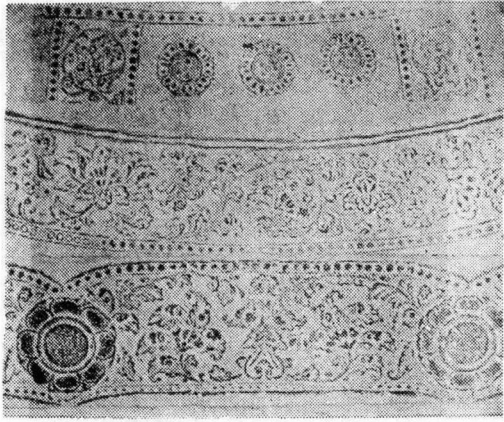
은 子房보다 花

瓣이 크다

以上 上下의 手法

差異를 생각한다면

鑄鐘工이 한 사람으



로 二例의 솜씨를 나타낸 것인지 또는 同時代의 사람으로 二人의 作品인지 或은 年代가 다른 二人의 作인지의 三者中 年代가 다른 二人의 솜씨로 보아진다. 聖德王이 二十三年 在位에 「欲鑄一大鐘一口立志未成」을 생각해서 年代差가 있는 鑄形工의 두 솜씨가 아닌가 생각되는 바이며 口帶에 나타난 八葉蓮瓣은 百濟末期 瓦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솜씨이며 또 鐘의 口帶 肩帶乳廓等 上下周邊의 連珠文도 扶餘畫像埴 圓周裝飾에서 보는 感이 있다. 이러한 八瓣蓮花文은 慶州의 四天王寺址 蓮花光背、興輪寺址 蓮花拜石과 近者 出土된 皇龍寺址 蓮花文 椽木瓦에도 남아 있음에서 新羅統一後 八〇餘年까지 그러한 솜씨가 있었던 것이 立證된다. 다음에 三—五·五寸의 鎔液을 流入하던 注入口가 龍鈕 外側 左便에 縱으로 四個所와 右便 圓頂邊을 따라서 四個所 龍鈕 前後에 各一個所合 十個所가 있는데 流液이 注口위로 솜은 것을 잘라 버릴적에 조금씩 솜은 것도 있고 或은 패인 자리도 있다. 이 巨大한 鐘을 鑄造하는데는 여러 注入口를 만들고 冷却하기 前에 一時에 各注入口에 鎔液을 注入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 鐘 內部의 天井과 鐘壁을 살펴보면 西側(長四·三寸)과 南側(長四·五五尺)에 넓직한 銅片을 補添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만한 鐘을 成就하는데는 많은 技工의 苦悶과 精誠을 다하였겠지만 鐘肩下의 厚薄調整이 좋은 音響을 내는 鑄鐘秘訣이라한 것도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吐含山頂의 破佛

鄭 明 鎬

石窟庵에서 北方約 一km되는 海拔約 六四〇m되는 吐含山 最上峰에서 破損 石佛立像을 調査하였다. 이 곳은 現在 平坦한 草原地帶로 되어 있으며 上峰에서 東南約 三尺는 곳에 中央部가 二片으로 切斷되고 顔面이



磨損된 立佛石像 一
軀가 있으며 이곳에
서 九尺地點下 平平
한 敷地에는 墓一基
가 있어 墳周는 石材
로 둘러 있는데 이곳에
서 南西方에 約五十
尺直徑되는 烽火臺
의 遺蹟으로 보여 지
는 곳이 있는고로 아
마도 墳墓周邊을 두
른 石材들은 烽火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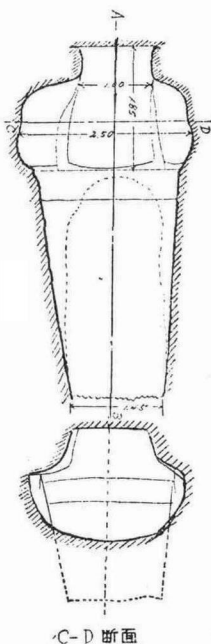
의 石材인 것 같다. 이 烽火臺에 對하여서는 東國輿地勝覽 烽燧條에 있는
「東岳烽燧址在府東五十七里南大岫西應高住山」가 이곳으로 推測되어지고 있다.
佛像은 無紋의 舟形光背를 具備하였던 것이나 어느 때 顔部와 光背가
破損當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며 中央部가 二片으로 切斷된 것만은 近年
의 일로 推測된다. 이 像의 衣紋은 通肩한 法衣가 裙위를 흘러 兩手에
걸쳐 늘어졌고 衣端은 兩便으로 떨어지고 褶襞은 段狀의 彎曲衣紋으로 무
릎까지 내려져 있으며 兩下肢의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 印相은 가볍게
右手를 腹部上에 올려 놓고 左手는 胸部上에서 寶珠를 잡고 있는 듯한
感을 보이고 있으며 兩足은 앞을 向하였는데 底部에 축이 없는 것으로 보
아 그냥 直立시킨 것 같다. 이 佛像은 頭部가 損失되어 있는 關係로 佛
名을 規定하기가 困難하나 印相으로 보아서는 菩薩인 듯 하며 佛像座向
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石窟庵과 關聯이 있는 像으로서 東向하지 않았
던가 하는 推測이 되는데 이 곳에서는 東海가 目下에 展開되는 것으로
미루어 더욱 그러하다. 이 周圍에는 古瓦片이 散在하고 있다.

總高 四・五尺
身高 (顔部除外) 三・二尺
肩幅 一・五尺

考古美術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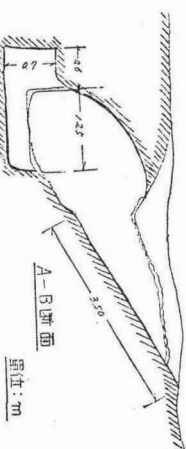
◎ 扶餘에서 瓦窯發見調査

扶餘郡 扶餘邑 東南里에서 瓦窯 三基가 發見되어 그 中 一基가 扶餘博物館長 朴
日蕙氏에 依하여 發掘調査되어 그 構造를 밝히는 同時에 瓦片 多數와 數片의 粉
靑砂器破片
을 採集하
였다 한다.
窯의 實
測圖는 다
음과 같다.



靑砂器破片
을 採集하
였다 한다.
窯의 實
測圖는 다
음과 같다.

◎ 虎圖
展示會



國立博物館에서는 壬寅年을
맞이하여 虎圖展示會를 二月五
일부터 三月十八일까지 同博物
館에서 開催하였는데 總十三點
이 陳列되었다.

◎ 支石墓 調査

지난 三月十日 國立博物館 金正基 李蘭暎 兩氏는 忠北 堤川郡 淸風面 黃石里
所在 破壞 支石墓群 整理調査次 出發 滯在中 서 울대 文理大 同人 金元龍氏도 同
日夜行車로 뒤따라 出發하여 十二日 아침 歸京하였다.

南漢江에 面한 砂地에 南式支石墓가 地上에 있는것만 二十餘基이고 地下에 埋
沒된것도 相當히 많으리라고 한다. 此外에 立石 一雙이 있었으며 今般 調査에 앞
서 洞民 柳康烈氏는 支石墓 一基에서 石鏃, 土器를 採集하였다고 한다. 今般 調
査에서는 石器와 土器가 發見되었는데 土器는 모두 小破片들이었다고 한다. 構
造는 箱式石棺과 雜石으로 四壁을 쌓은 것이 大部分 있었고 十三基를 調査한 中